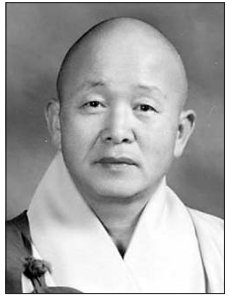


## 오륙도 칼럼



혜 종 스님

일생을 착하게 살아온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앞서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염라대왕에게 가니 이승에서 착하게 살다왔다고 극락으로 보냈습니다. 극락생활은 너무나 편안했습니다.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저절로 배가 불러지고 갖고 싶은 것이 있

으면 무엇이든 생각만 하면 또 갖게 되니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진 지 몇 년이 흘러 이승의 할머니가 돌아눕게 되었는데 하루는 할머니 꿈에 할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모습은 아주 편해보였습니다. 반갑게 웃으시며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멈, 저승에 와서 염라대왕이 극락궁경을 시켜주거든 구경만하고 다시 이승으로 돌려보내 달라 하고 그때는 우리 영감도 데려가게 해주시오 하고 꼭 부탁하구려. 잊지 마시오.”

몇 번이고 당부하는 할아버지를 꿈에서 뵈지 며칠 후 할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 극락에서 살자

할머니는 염라대왕께 가서 할아버지가 일러준 대로 고하고 극락궁경을 하다가 할아버지를 만나자 이 좋은 극락을 마다하고 왜 이승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편한 것도 하루 이틀이지 영영 일 없이 놀고만 있는 극락에 진정한 즐거움이 어디 있겠소? 우리가 일에 쫓겨 서로 걱정을 나누면서 오순도순 살면 그때가 진짜 재미있었던 것 같소.”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일상 속에 지옥도 극락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순간순간마다 지옥도 가고 극락도 갑니다. 매사에 쟁그리고, 못마땅해 하고, 불만에

떨면 그 순간이 바로 지옥입니다. 늘 웃음이 떠나지 않고, 서로 돕고 인정을 나누며 산다면 그곳이 바로 극락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극락같이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나도 즐겁지만 남도 즐거울 수 있도록 서로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 진정한 행복이 찾아옵니다.

또 다른 지옥과 극락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승사자의 착으로 이물질 노인을 대신해 염라대왕 앞에 갔는데 염라대왕이 살아온 이력을 보니 잘못 끌고 왔지 않나, 사과차원에서 지옥과 극락을 구경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옥에 가보니 일반 세상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

다. 알고 있기로는 끓는 기름 솥에 빠지고 창에 찢리고 허도 뻘히는 무시무시한 곳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마침 식사시간이라 사람들이 산해진미를 차려놓고 식사를 하는데, 하나같이 길이가 석 자 정도 되는 긴 젓가락을 들고 서로 맛난 음식을 많이 먹으려고 다투기만 할 뿐 정작 자기 입에는 한 점의 음식도 가져가지 못한 채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극락에 사는 사람들은 그 긴 젓가락으로 서로 상대방 입에 음식을 넣어주며 즐겁게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극락도 지옥도 만드라는 이야기입니다. 살다보면 슬픈 일도 찾아오고 그러다 시간이 흐르면 또 기쁜 일도 찾아옵니다.

슬픔이 있기에 기쁨이 빛나는 것입니다. 늘 기쁘면 그 속에 우울증

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처지가 좀 어려워도 세월이 약이라 생각하고 무던히 견디며 세월을 잘 보내야 합니다.

또 기쁨에 취해서 술을 때를 외면하고 살면 안 됩니다. 어려운 이웃으로 눈길을 주면서 살아야 합니다.

주변에 복지관에서 자원봉사하는 분들을 많이 보는데 그 분들은 늘 활기차고 “하하!!호호!!”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 분들은 늘 극락에 사는 분들입니다.

그런 문제에 건강장수는 자연히 따라오는 법입니다.

가정과 이웃을 극락세계로 만들려면 반드시 나부터 긍정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몸과 생각과 일로 짓는 나쁜 업을 경계하고 서로를 칭찬하면서 잘 될 거라는 희망 속에 밝게 살면 그곳이 바로 극락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이사장

## 신선대

<196>



선용의

1000자 지혜 96

## 속이기 쉬운 것

중국 양주에 가면 당나귀 고기가 유명인데, 한 번도 당나귀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당나귀 고기맛이 어떠냐고 물어보면, 하나같이 ‘하늘의 용고기 다음 간다.’고 대답한다.

물론 당나귀 고기가 그만큼 맛있는 뜻인데 하늘에 사는 용의 고기를 먹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그 맛을 어찌 알 수가 있겠는가? 이것은 어디까지나 당나귀 고기의 선전이고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 말이다.

어느 화가가 제(齊)나라 임금에게 그림 한 장을 그려서 바쳤다. 임금은 그 그림을 보고 매우 칭찬한 뒤 물었다.

“그림을 그리는데, 어떤 그림이 가장 어려운가?”

그러자 화가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다.

“예, 개와 말 같은 것입니다.”

임금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다시 물었다. “짐이 잘못들은 것이겠지. 개와 말 같은 것이 가장 어렵다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림자가 힘이 듭니다.” “그렇다면 가장 쉬운 것은 어떤 것인가?”

“소인 생각에는 도깨비나 귀신

같은 것이 아니겠나 합니다.” “네가 갈수록 괴상한 말을 하는구나.”

잠시 후, 임금은 웃으며 말했다. “아마 네가 농담을 하는 거겠지. 도깨비나 귀신보다야 개나 말을 그리는 것이 훨씬 쉬울 텐데, 짐의 말이 틀렸는가?”

화가가 정색을 하며 대답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개나 말 처럼 우리가 언제나 볼 수 있는 것은 엉터리로 그릴 수 없습니다. 개를 말갈이 그려놓고 개라면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도깨비나 귀신을 직접 본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정하어진 모양이나 형태가 없으니 화가의 마음대로 그려도 그 그림이 틀렸든 또는 잘못 그렸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번도 없을 것입니다. 도깨비나 귀신의 그림이 제일 그리기 쉽다는 소인의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다. 모르는 것을 속이기는 쉽다. 하지만, 누구나 다 잘 아는 것을 속이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비단 그림뿐만 아니라 세상사 모든 것이 다 그러하지 않을까?

번역문화가



## 독자의 소리

‘독자의 소리’란 독자 여러분에게 활짝 열린 공간입니다. 주위의 시정사황이나 미담사례를 보내주시면 채택된 원고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부산남구신문편집실 ☎ 607-4075, FAX 607-4374, bns4075@korea.kr

### 오륙도축전으로 개명을

얼마 전 남구의 대표적인 잔치 한마당인 오륙도축제가 성황리에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 예년과 달리 5월에 열려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긴 흥겨운 자리였다. 앞으로는 계속 이 시기에 열린다고 하니 잘 한 일이라고 칭찬하고 싶다.

하지만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 다름 아닌 오륙도축제는 행사 이름이다. 이것은 오륙도축전이라고 불러야 맞다.

축제(祭典)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축하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행사이니 뜻과 제사를 이르는 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일반식 한자어에서 유래했다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축제라는 단어를 대신해 축전(祝典)이라고 부

르는 행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처음 남구에서 열린 ‘평화 대축전’ 행사 이름도 여기에 부응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앞으로 불꽃축제, 영화축제, 대학 축제라는 말보다 축전이라는 말로 대체해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영관(용당동)

### 불꽃축제 사랑받는 행사로

얼마 전 화려하게 막을 내린 평화공원 불꽃나들이 행사를 바라보며 남구의 또 다른 명품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형형색색의 불꽃이 잔연한 모습을 바라보며 행사장을 찾은 남구민은 물론 부산시민 모두가 즐거워하는 모습에 주민의 한사람으로 가슴 뭉클함을 느꼈다.

###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 무궁화전시원 이용을

관공서에 무궁화를 심자고 건의해 주신 남천동 우정철님의 건의에 답변 드립니다.

우리가 관내 대연동 대연수목전시원 내 무궁화전시원에서 무궁화 전시 및 관람 가능하시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무궁화 축제는 장기 계획으로 가능여부를 검토하도록 하

겠습니다. 즐거운 관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하창훈>

#### 자전거도로지도 제작 예정

자전거도로 홍보를 해달라는 용호4동 정혜문님의 의견에 답변 드립니다. 구에서 2010년에 「자전거가이드」 홍보 리플렛을 제작하여 자전거전용 도로를 중점 홍보한 바 있습니다. 또

### ■오륙도백일장 초등부 운문 장원

#### 봄 소풍

김가영(우암초동·6)

푸른 나무 곁  
푸른 풀잎 곁  
푸른 새싹 뒤  
봄 오는 소리

희망에 찬  
기대에 찬  
재잘 재잘  
아이들 소리

푸른 나무보다  
푸른 풀잎보다  
푸른 새싹보다  
푸르디 푸르디

볼날 푸르들과  
손잡고 떠난다  
우리는 다 같이  
봄소풍 간다

### 오륙도백일장 입상자 명단

■초등부-운문  
▲장원 김가영(우암초동·6) ▲차상 판장훈(오륙도초동·4) ▲차하 박채원(용문초동·2) ▲입선 강민주(동천초동·6), 이문강(용산초동·6)  
■초등부-산문  
▲장원 조현진(남천초동·6) ▲차상 안수빈(운산초동·4) ▲차하 현연주(우암초동·5) ▲입선 장운서(용문초동·2), 최서영(동천초동·2), 김재현(남천초동·4), 박동재(운산초동·4), 박민서(대연초동·4), 정수민(대연초동·2) ▲장원 황수빈(예문여중·2) ▲

차상 이문희(오륙도중·2) ▲차하 김성욱(동향중·3) ▲입선 이채윤(문원여중·2)  
■고등부-운문  
▲장원 이문영(예문여고·2) ▲차상 최진영(예문여고·2) ▲차하 이예림(예문여고·2)  
■고등부-산문  
▲입선 남승주(예문여고·2)  
■대학·일반부-운문  
▲장원 이혜수(용호동) ▲차상 권혜란(광안동) ▲차하 이승자(우암동)  
■대학·일반부-산문  
▲장원 고인혜(용호동) ▲차상 최영미(대연동) ▲차하 진종철(대연동)

### ■오륙도백일장 일반 산문 장원

#### 동행



고인혜

(흥익구부방 운영·용호2동)

하루하루 즐거운 동행의 시작이다.

책찌글 책찌글 새들은 새들대로, 싱그럽고 푸르른 오월의 신통들은 또 그들대로 즐거운 동행을 한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 혼자서는 살아 갈 수가 없다.

햇볕, 물, 바람, 공기,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이 모두의 정성과 수고로움이 합쳐져서 삶을 가꾸어 나가는 것이다.

어릴 적에는 내가 잘나서, 나만 잘 하면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지만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착각일 뿐이다.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지나치게 개인적인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내 새끼만 귀하고 나 자신과 내 가족만 우선시 하는, 그래서 때로는 이기적이기까지 한 사람들이 많다.

나와 내가 중요한 것은 당연하지만 조금 더 시선을 둘러보면 지구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가 흔들리고 우리나라에 위급한 일이 생기면 우리가 함께 위급해진다.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얼마 전 이웃나라 일본에 생긴 지진피해, 중국, 아이티, 미국의 토네이도 발생 때를 보면 우리는 간단하게 나보다 우리의 소중함을 잘 알 수 있다.

서로 손을 내밀어 넘어진 이웃을 일으켜 세워주고 따뜻하게 안아주며 위로해 주는 그 힘. 바로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동행의 힘이 아닐까?

우리의 삶은 때로는 혼자만의 노력을 드러내는 솔로(Solo)부분도 필요하지만 주변사람들과 하모니를 만들어 나가는 조화로운 삶이

더 소중하다. 아이들과 어른들과 노인분들이 서로의 입장과 다름을 이해하고 먼저 손을 내민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 이상 이기적이지도 않고 따뜻한 동행이 될 것이다.

결과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결과 세상은 온통 경쟁의 도가니가 되어 점점 폭곤 한다.

너와 내가 경쟁자가 아니고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친구라 생각한다면 한결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이웃을 향한 우리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피어오르고 너그러운 우리가 되지 않을까?

산들산을 뺨을 스치는 바람도 귀를 간질간질하게 하는 새소리도 천사처럼 뛰노는 저 아이들의 예쁜 모습도, 다정하게 앉아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는 어른들의 모습도 모두 우리 삶의 소중한 한 장면이다.

나와 내 가족이 모여 우리나라가 되고 그런 우리 모두가 모여 이 아름다운 지구에 살고 있음을 잊지 말자.

오늘도 나는 언제나처럼 즐거운 동행을 위해 길을 나선다.

5월의 푸른 하늘 아래 싱그러운 나무와 바람의 노래를 들으며 친구들과 함께 한결을 한결을 함께 나간다.

### ■ 행정 일선에서

## 언제나 36.5도로 찾아갑니다



조혜진

살다보면 힘든 일들이 참 많다. 그 고비를 넘는 사람도 있고 그 고비를 넘을 힘조차 없는 사람들도 있다. 고비에 서 있는 이웃들에게 희망복지지원단이 36.5도의 체온으로 다가가려 한다.

남구는 지난달 1일자로 주민지원과 서비스연계담당을 희망복지지원단으로 개편하였다. 목표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가난한 생활에서 벗어나 자신들에게 잠재된 힘을 발견하고 키움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나락으로 다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희망복지지원단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위기가정과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진 대상자가 한 계단 올라선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대상자에게 꼭 맞는 서비스와 지원

을 찾아 연계하고 그것을 통해 대상자들이 다음 계단을 혼자서 오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를 통합사례관리라고 하는데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복지, 보건, 교육, 고용, 주거, 자활과 같은 서비스를 대상자 중심으로 지원하여 관리한다. 그리고 보건소와 같은 방문형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과 연계하여 대상자들이 한층 더 가깝고 따뜻한 복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지역주민, 기업 등이 지역사회에 직접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함께 성장하는 남구를 만들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 외에도 희망복지지원단에서는 저소득 영구임대주택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이웃돕기 지원,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함께 성장하는 남구를 만들어가고 있다.

희망복지지원단의 일원으로서 앞으로 ‘사람다운 복지, 찾아가는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해 보며 다시 한번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생각해 본다. 주민지원과

힘들면 두드려주세요. 희망복지 지원단으로  
가구의 다양한 문제를 맞춤 서비스로 돕겠습니다.

■신청기간 : 2012~계속  
■신청대상 :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위기가정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기타 문의사항 : 동주민센터 또는 희망복지지원단  
☎607-4861~4867, 4851~4853

### 부산남구신문

1996년 1월 1일 창간

발행처 부산광역시 남구 / 편집자 李 福 熙 / 편집주간 河 仁 相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남구청 대표전화(051)637-7373 편집실(051)607-4065, 4075 / FAX(051)607-4374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http://www.bsnamgu.go.kr

인쇄처 부산일보사 / 월간 <비매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